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생활사 중심 역사교재 구성 방안

정 태 호

용인둔전제일초등학교

Ⅰ. 서론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인류의 삶을 이해하고, 현재 우리의 삶과 모습을 과거와 연관시켜 살펴봄으로써 인간과 그 삶에 관하여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키우는 과목이다. 이는 역사교육을 통해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과 연결시켜야 함을 뜻한다. 하지만, 초등 역사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너무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가르치느라 단편적인 지식을 주입하는 경우가 많고, 정치사나 지배층 중심의 역사와 같이 너무 어려운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강선주 외, 2009). 이러한 현실은 역사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역사를 암기 과목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어떤 교과에 대한 학생 개인의 인식은 그 교과 학습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참여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체능 교과와 같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교과는 별다른 통제 없이도 학생들 스스로 학습에 참여한다. 하지만 초등 역사교육의 현실은 역사에 대한 학생 개인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역사수업의 참여도를 떨어뜨리며 역사교육의 목표 도달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역사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암기 과목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역사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역사와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즉, 학생들이 과거 세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활사 중심 역사 내용 구성 방식은 지금까지 드러난 역사교육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활사는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흥미롭게 전달하고, 생활사적 접근을 통해 학생들이 역사적 지식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최용규, 2004; 송호정, 2005).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3차 교육과정 이후 지금까지 초등학교는 생활사라는 계열화 방안이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지만, 실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생활사의 내용과 방법이 잘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는 학자들에 따라 생활사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도 다르며, 생활사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강선주 외, 2009). 또한, 연대기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역사 내용 서술 방식은 왕조를 중심으로 한 정치사가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국난 극복이나 업적을 중심으로 한 주요 인물을 암기하는 것에 치우치기 때문에 올바른 의미의 생활사 내용과 방법이 반영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사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하고, 그동안의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는 생활사 중심의 교재 구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생활사의 개념과 연구 동향

1. 생활사의 개념에 대한 논의

생활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우리는 생활사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 먼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강선주(2005)에 따르면 생활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정치사, 경제사 등과 같은 분야사로 보는 관점과 둘째, 생활을 학습 주제로 하여 과거사의 이해로 안내해야 한다는 역사 전체의 성격으로 보는 관점이다.

첫 번째 관점은 생활에 대한 학습을 역사교육의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과거 민중의 삶, 여성, 어린 아이, 보통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강선주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7차 교육과정에서의 생활사가 첫 번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하여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생활사는 의식주, 생활도구, 교통, 통신, 민요, 놀이, 축제, 신앙, 가정의례 등의 측면에서 본 과거인의 생활이라고 하며, 7차 교육과정에서 생활사 교육이란 그러한 과거인의 생활을 소재로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가르치는 것으로 개념화 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생활사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인의 구체적인 개인의 경험, 의식, 태도 등의 반복적인 일상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국가적·공적 측면보다 사적 측면에 초점을 두며, 다양한 사료를 통해 인간의 삶에 관한 이야기나 생활 문화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문기상, 1995; 우인수, 1999; 정연식, 2001; 곽차섭, 2002). 이 중 곽차섭(2002)은 생활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면서 동시에 반복되는 일상의 저변에 존재하는 구조나 패턴까지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② 국가적·공적 측면보다는 개인의 사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 ③ 사례연구를 지향한다. ④ 사료의 범위를 종래의 편찬자료나 규범적 성격의 자료를 넘어서서 일기, 문집, 잡기, 소설, 야사류 등 문학자료, 나아가서는 서화류까지도 망라하는 쪽으로 대폭 확대한다. ⑤ 분석적인 서술방식 보다는 이야기체를 지향한다.

두 번째 관점은 생활을 활용하여 역사교육의 목표를 도달하려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본 생활사는 생활을 학습 주제로 하여 학생들에게 흥미 있는 역사 수업의 내용을 제시하고, 생활사를 통해 인물사, 정치사에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자료의 활용과 수업 방법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기존의 역사연구에서 등한시되거나 소외되었던 계층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의 문화를 통해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생활사를 시간의 흐름에서 이해하고, 과거 사람들의 생활을 의미있게 해석하며, 학생들의 참여 의식 고양과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역사인식을 토대로 역사적 개념의 이해를 돕는다는 것이다. 즉, 생활사를 역사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틀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활사가 중요한 이유는 생활사 자체를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역사에 대한 흥미를 느끼며, 역사를 역사답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역사를 배우는 기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사를 통한 사회과 역사학습은 초등학교 중학년에서 고학년에 이르는 아동들의 학습기능과 역사적 사고, 역사에 대한 흥미와 참여 기능 등을 함양시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임하영, 2003; 최용규, 2004; 강선주, 2005; 민윤, 2005; 송호정, 2005; 강선주 외, 2009). 여기에서 생활사는 과거 사람들의 생활 태도와 방식을 의미 있게 해석하고, 역동적이며 변화하는 성격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생활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생생하게 그려내고자 노력한다. 둘째, 분석적이고 설명적인 서술 방식이 아닌 이야기체를 지향하는 연구 경향을 가진다. 셋째, 다양한 계층과 신분의 생활을 복원하려고 한다. 넷째,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활 모습의 양상과 변화를 복원하려는 데 주된 관심이 있다(김희선, 2007).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 반면, 차이점으로는 2000년대 이전에는 생활사를 분야사로 보는 관점이 우세한 반면, 2000년대 이후에는 생활을 학습 주제로 하는 내용 구성 방식으로 보는 관점이 우세하다. 이는 생활사에 대한 개념 정의에 있어 초기에는 생활사에 대한 연구가 민속학이나 지방사 연구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에 대한 제시에 그쳤으나, 점차 생활사가 역사교육에 끼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생활사를 역사교육 전체의 내용 구성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2. 생활사의 도입과 연구 동향

역사교육에서 생활사라는 용어는 초등학교는 '생활사'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미 1970년대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역사학계에서 생활사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이다. 따라서 역사교육에서 생활사 담론이 역사학계의 생활사 논의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강선주, 2005). 이처럼, 생활사라는 용어 사용은 역사학계와 역사교육학계에서 사용된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입장을 따로 분류하여 살펴보아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역사교육학계에서의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역사교육학계에서 '생활'에 대한 논의는 교수요목기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3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에 반영된 생활사는 분야사로서의 생활사 관점이 반영되어 왔고, 2000년을 전후하여 생활을 학습주제로 하여 역사교육 전체의 내용 구성 방식을 생활사로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한국사가 인간의 구체적인 삶이나 정서를 읽어내지 못하고, 역사학의 연구 성과로 얻어진 국가나 사회상의 변화를 추상적, 나열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왕이나 정치가, 남성 위주의 역사로 평범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등한시 했다는 비판을 하였다. 그로 인해 학생들이 역사를 암기해야 할 사실이 많은 과목으로 여기게 되어 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역사교육에서 생활사를 과거사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이들은 생활사를 통해 과거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연구하여 인간의 삶에 대해 이해하고, 역사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며, 현재 우리의 삶을 되새기고 나아가 미래의 우리 모습을 생각하고자 하였다(임하영, 2003; 최용규, 2004; 민윤, 2005; 송호정, 2005).

역사학계에서는 곽차섭(2002)이 생활사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서양사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문화사'의 관점에 기대어 일상, 문화, 미시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접근하고자 하였다.[23] 또, 조한욱(2000)은 그의 저서에서 신문화사의 역사 설명 몇 설명 방식으로 '두껍게 읽기, 다르게 읽기, 작은 것을 통해 읽기, 깨뜨리기'의 방식을 소개하며 신문화사를 통해 역사학이 풍요롭고 다양해졌다고 말하고 있

23) 독일의 일상사, 프랑스식 생활문화사, 이탈리아의 미시사로 분류되는 것을 어우르는 관점으로 정치사, 사회경제사가 주목했던 지배층 중심, 지배체제 중심의 역사학을 넘어서 역사를 살았던 개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다. 최용규(2004)는 이러한 역사학계의 관점을 생활사 학습 관점에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강선주(2005)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초등학교 생활사 학습의 맥락과 역사학계의 맥락을 비교하여 차이나 지향점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생활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둘째, 생활사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낯설음을 해소하여 역사적 지식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생활사는 역사수업에 있어서 다양한 학습방법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역사교육 목표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현장에서 교사들을 중심으로 재미있는 국사수업 방법을 연구하거나 생활사 관련 역사서 발간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러한 생활사의 특징을 이해하며 활발한 생활사 연구의 결과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Ⅲ. 교육과정 내 생활사에 대한 논의 및 지향점

1. 생활사 관련 교육과정 분석

역사교육 계열화의 기본 방향은 초등학교는 생활사, 중학교는 정치사, 고등학교는 문화사라고 표방하는데, 여기에서 생활사의 관점은 전반적인 학습 내용이나 소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서 생활을 채용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이는 교수요목기부터 2차 교육과정까지에 걸쳐 그 원형이 형성되었고 3차 교육과정에서 기본 방향으로 표방되었으며, 3차 교육과정 이후 국사 교육과정 계열화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생활사는 3차 교육과정에서 역사학습의 특성으로 자리 잡으며 계열화 기준 역할을 하게 되었다.(방지원, 2006)

사회과교육에서 '생활'이 내용 구성의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것은 교수요목기이다. 교수요목기 사회과에서는 '생활중심(경험중심)' 교육관과 관련이 있다(강선주, 2005).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던 3차 교육과정에 접어들면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국사 내용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생활중심 교육관에 기원을 둔 생활사가 초등 단계 역사교육 내용의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방지원, 2006). 초등학교는 3차 교육과정 이후 생활사를 명시적으로 계열로 정한 이래 7차 까지 큰 변화 없이 계열화가 지속되어 왔다(송상헌, 2003; 강선주, 2005; 방지원, 2006). 이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강우철이다. 역사교육 논의에서 생활사라는 용어는 1974년 강우철의 '역사의 교육'에서 발견된다. 3차 교육과정에서 강우철이 말한 생활사란 5학년의 '경제생활의 발전'과 '문화생활의 발전'단원을 지칭하는 것이었다(강선주, 2005).

방지원(2006)에 따르면 4차 교육과정에서 역시 생활사-정치사-문화사의 기준을 그대로 표방하였다. 5차 교육과정 때에는 4차 교육과정에서 계열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생활사라는 용어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교육과정 해설을 보면 '생활사'라는 용어는 5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한다. 그리하여 3~4학년에서는 사례사, 5학년은 생활사, 6학년은 인물 사건사로 구성하였으나 역사영역의 두 가지 관점을 혼용하여 의미상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5차 교육과정에서 시도한 단원 구성 방식을 통한 계열성 확보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고 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인물사와 생활사 중심, 분류사 형태의 접근, 구조적인 내용 조직 등을 강조하였다. 6학년 내용 구성이 중학교와 차별성을 기하기 위해 정치사 중심 구성에서 벗어나 인물사를 한층 강조하였다(방지원, 2006).

7차 교육과정에서는 6차 교육과정의 계열성 방향을 유지, 강화하였고, 초등학교는 인물사와 생활사 내용을 구성하였다(방지원, 2006). 최용규(2004)는 7차 교육과정에서 생활사 학습과 관련된 특징으로 첫째, 역사적 사건을 보는 '밑으로부터의 관점' 강조와 둘째, '일상생활'이 새로운 내용 요소로 받아들여졌고, 셋째, 생활사 학습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교재화 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강선주 외(2009)는 7차 교육과정 해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생활사를 통해 의도하는 역사 학습의 핵심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 파악'이지만, 내용 체계를 보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도록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7차 교육과정까지 생활사 교육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역사교육의 계열화 논리와 초등 내 체계에 대하여 당위성과 이론적 규명, 학문적 논의가 없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송상헌, 2003; 최용규, 2004; 강선주, 2005). 둘째, 초등과 중등의 역사가 차별화 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였다(강선주, 2005; 방지원, 2006). 셋째, 생활사 학습으로 인해 새로운 경향을 제시해주고 학습에서 흥미와 생동감을 강화하였지만, 현재 생활사는 생활의 평면적인 나열이나 단순 비교에 그치는 경향이 강하다(최용규, 2004; 강선주, 2005; 민윤, 2005).

2007개정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생활사 중심 내용 구성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내용 구성틀이 5학년 1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연히 다른 계열화가 시도되었다. 즉, 생활사를 표방하면서 연대기적 구성으로 제시하게 되어있다. 방지원(2011)에 따르면 2007개정교육과정에서 생활사는 민속학적 생활사에서 역사적 생활사로의 변화하였으며, 소외된 역사적 주체에 주목하여 역사 속의 주체들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등장하는 등의 특징이 있지만, 정치사의 흐름을 따라 서술하려다 보니 한계가 있으며 보통 사람의 일상생활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는데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고 비판하였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9개정교육과정을 생활사 관점으로 분석한 방지원(2011)은 2009개정교육과정은 국가나 민족 중심의 서사로 돌아가는 모습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인물을 활용한 구성을 강조하였는데, 선정된 인물이 주로 정치사나 국난극복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사람들의 활동을 역동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고, 특정 시기의 '현상'을 살펴보는 쪽으로 변화된 느낌이 강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역사교육에 있어서 학자들이 생활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대부분 분야사가 아닌, 역사교육 전체의 내용 구성 방식으로서 생활사지만, 그것이 실제 교육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용 구성 방식으로의 생활사를 지향하였지만, 실제 반영된 것은 분야사에 가까운 생활사이다. 그 원인으로는 독일의 일상사에 대한 피상적 적용과 그로 인한 개념의 혼재, 내용 구성 원리와 계열화 논리의 충돌, 생활사를 바라보는 민속학적 관점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생활사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역사교육의 새로운 방법과 다양한 자료가 제시됨에 따라 앞으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현재 이루어지는 생활사 관련 연구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진정한 의미의 생활사를 역사교육 전체 내용 구성 방식으로 반영해야 한다.

2. 생활사 중심 역사교육의 지향점

1) 거시적인 측면 : 역사영역 전체의 구성 방식 변화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생활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생활사를 분야사로 보는 관점, 둘째, 생활사를 전체적인 구성 방식으로 보는 관점이다. 강선주(2005)는 반복을 피하고 다른 국면의 역사를 다각도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초등학교 역사영역을 진정한 의미의 생활사로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학생들에게 익숙한 소재들을 통해서 역사를 가르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학생들이 역사가 제공할 수 있는 폭넓은 경험과, 세상을 보는 안목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오늘과 다른 과거 생활 모습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활사 학습이 구조화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활사를 하나의 분야로 보지 않고 시대를 이해하는 '개념적 틀'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생활사를 통해 한 시대의 생활 모습은 그 시대의 전체적인 생활상, 시대상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생활사를 전체적인 구성 방식으로 보는 관점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실제 교육과정에 반영된 경우는 드물다. 특히, 민속학계의 연구 결과를 생활사의 내용 요소로 선정하여 평면적으로 나열한 지난 교육과정의 예를 보면 생활사는 흥미 있는 소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생활사 학습을 하고자 한다면, 역사영역의 내용 구성 방식 전체를 생활사의 틀로 구조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당시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파악하며, 보다 쉽게 역사적 지식에 다가서고, 흥미 있는 역사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미시적인 측면 : 역사수업의 구성 방식 변화

생활사 학습의 구성방향은 크게 내용 선정, 서술 방식, 학습 자료, 학습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① 생활사 학습을 위한 내용 선정 및 조직

생활사 학습의 내용 선정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과거 인간의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역사적 주체들의 일상적인 모습, 문화를 잘 드러내는 내용으로 사회사나 문화사에서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최용규, 2004; 강선주, 2009; 방지원, 2011).

② 생활사 학습을 위한 역사적 내러티브 서술 방식

생활사 학습을 위한 서술 방식으로 대다수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의견은 역사적 내러티브의 활용이다. 역사 내용 서술 방법에 있어서 딱딱한 나열보다는 이야기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임하영, 2003; 최용규, 2004; 강선주, 2005; 민윤,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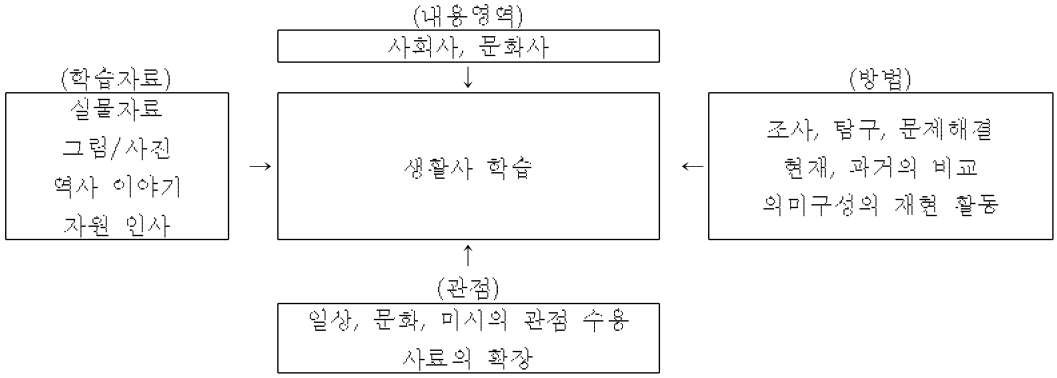
③ 생활사 학습을 위한 학습 자료

생활사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 자료도 변화해야 한다. 연구의 대상을 심문기록, 민담, 축제, 그림, 조각 같은 비언어적 자료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 시키고, 사료를 재해석하며, 박물관이나 역사 소설, 역사 드라마도 활용할 수 있다(임하영, 2003; 최용규, 2004; 송호정, 2005).

④ 생활사 학습을 위한 학습 방법

생활사 학습을 위해서는 구술자료와 문헌자료를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하고, 학생들이 과거인의 인식 세계를 탐구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생활사를 통해 학생들이 당시 사람들이 사회를 보았던 '렌즈'를 확인하고, 당시 사람들이 보았던 인간, 사회, 사물들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임하영, 2003; 강선주 외, 2009).

이러한 논의 중 대표적인 것으로 최용규(2004)의 '생활사 학습'의 구조를 들 수 있다. 그는 '생활사 학습'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생활사 학습의 구조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생활사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이해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내용을 선정하며, 일상생활의 모습을 친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내러티브 서술 방식을 활용하고, 연구 대상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생활사 학습을 실천한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교육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게 할 것이며, 흥미를 가지고 역사 수업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3. 생활사 중심 교과서 재구성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생활사 중심 교과서 재구성 방안에 대해 이미 몇 개의 선행연구가 있다.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생활사 중심 교과서 재구성 방안의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임하영(2003)의 '조선후기 신분질서의 변동'에 대한 교재 재구성

임하영(2003)은 기존의 교과서의 단원명이 정치제도적인 사건 중심으로 서술된 것과 달리 실제로 당시를 살아가던 개인들에게 일어날 법한 일들을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또한, 단원간의 관련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김홍도의 풍속화를 통해 단원 도입을 구성하고 내러티브 서술 방식으로 일화를 소개하며 내용을 진술하였다.

2) 최용규(2004)의 생활사 학습 방안에 따른 재구성

최용규는 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여 역사 내용구성 및 서술과 생활사 학습 관련 특징을 찾아보고 교과서 내의 생활사 관련 내용을 찾아 분석하여 생활사 학습을 위한 교재 재구성 사례로 앞서 제시한 생활사 학습 방안에 따라 다음의 다섯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① 실물자료 활용을 중심으로 한 교재 재구성, ② 그림자료 활용을 중심으로 한 교재 재구성, ③ 역사적 내러티브 중심의 교재 재구성, ④ 자원인

사 활용 중심의 교재 재구성, ⑤ 의미구현의 재현 활동

3) 김희선(2007)의 생활사 교재 예시방안

생활사를 '사회과 탐구'가 가진 보완적인 성격에 맞추어 예시자료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제안하였다. '한국생활사박물관' 책자의 장점에 주목하여 내러티브 방식으로 서술하였으며, 활동 자료는 따로 없었다. 구석기 시대의 일상적인 생활모습과 생활양식을 통해 전체적인 시대상을 상상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4) 문재경(2007)의 아동생활사 교재 구성 방안

문재경(2007)은 특별 계층으로 아동이라는 집단을 선정하여 아동생활사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7차 교육과정의 6학년 1학기 교과서의 내용 전체를 21개의 학습 주제로 나누어 각 주제별로 아동생활사 교재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수업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발견된 특징으로는 생활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거나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활사를 통해 과거사를 이해하고 새롭게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생활사를 분야사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역사 전체의 내용 구성 방식으로 본 관점이다. 이것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생활사의 관점을 이루어 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Ⅳ.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생활사 중심 교재 재구성 방안

1. 내용 구성 체계

지금까지 논의한 생활사의 관점 및 지향점을 바탕으로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생활사 중심 교재의 재구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생활사의 관점은 분야사가 아닌 생활을 학습 주제로 역사 영역의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을 택하였다. 이는 역사교육의 목표가 다양한 역사적 사실의 습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통해 과거사를 이해하고, 현재의 삶과 연관 지으며, 미래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사의 관점은 과거인의 삶을 보다 친근하게 이해하고, 과거의 삶이 현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역사영역 전체의 구성 방식으로써의 생활사 관점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역사영역 전반을 분석하여 생활사로 재구성하는 것에는 계열성과 역사학계의 학문적 요구 등에 대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를 택하여 생활사 중심 교재의 재구성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활사 중심 교재를 재구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연구자는 '조선후기 사회변화'를 주제로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교과서에는 조선 후기 사회변화를 가져오게 된 원인에 대하여는 자세히 제시하였으나, 일반 백성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재구성하기 위해 선택한 영역은 5~6학년에 새로운 사회 변화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을 선택했으며 이 영역의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허준, 효종, 안용복 등 인물 이야기를 통해 전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해한다.

② 신사임당, 허난설헌과 김만덕 등 인물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선 시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상을 파악한다.

③ 새로운 문물의 전래 모습을 알고 정조의 화성 건설과 정약용의 업적을 탐구한다.

④ 풍속화와 민화 등을 중심으로 서민 문화의 모습을 조사한다.

위와 같은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의 성취 기준은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전란 극복, 여성의 지위, 새로운 문물의 도입, 서민 문화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생활사를 파악하기에는 너무 분절되었다는 판단으로 새로운 성취기준 1개를 마련하여 총 3차시 분량으로 재구성 하고자 한다. 새롭게 재구성 한 집필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영 역 :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2. 주제명 : 조선 사회의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3. 성취기준 : 조선 사회의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사회 변화의 모습을 탐구한다.
4. 주요 개념 또는 주요 사실
   ① 조선 시대 사람들의 하루와 1년
   - 조상들의 하루 일과를 통해 당시의 생활 모습 파악하기
   - 조상들의 먹을거리를 통해 당시의 생활 모습 파악하기
   ② 조선 사회 서민들의 끼니 걱정
   - 기근으로 인한 삶의 변화 모습 파악하기
   - 기근 해결을 위한 노력과 그로 인해 변화된 생활 모습 파악하기
   ③ 조선 후기 변화된 삶
   - 농경기술의 발달과 상품작물의 등장으로 인한 생활 모습의 변화 알아보기
   - 신분제의 변화 모습 알아보기

2. 교과서 재구성 방안

1) 1차시 : 조선 시대 사람들의 하루와 1년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제시 자료
도입	·풍속화를 보고 남, 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기 ·조선 시대 농민의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고 앙부일구에 그려보기 ·양반의 상차림과 비교해보기	·논갈이, 바느질 풍속화 ·농민의 식사 모습 : 3첩 반상 ·앙부일구 삽화(일과표 제시) ·쇄미록 : 밥을 많이 먹는 다는 내용 ·양반들의 7첩 반상
전개	·풍속화를 통해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 알아보기 : 농사, 공부 등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며 명절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알아보기 ·겨울이 지나 봄이 와서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기는 생활 ·춘궁기나 기근을 이겨내기 위한 음식 설명	·벼타작, 서당, 씨름 풍속화 ·명절 차례상 제시 ·제기차기, 공기놀이 하는 어린이 모습 삽화 ·산에서 나물을 캐거나 나무껍질을 캐 먹는 삽화 ·쇠귀나물 사진, 위백규의 시 ·구황작물로 만든 음식 사진
정리	·조선 시대 기근 대책회의가 자주 열림 ·다음 차시 예고	

2) 2차시 : 조선 사회 서민들의 끼니 걱정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제시 자료
도입	·조선 시대 심각한 기근이 들었을 때 온 나라가 모두 노력한다는 사실 알기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 알아보기	·기근을 알리는 상소문을 받고 임금이 대책 회의를 하는 삽화 ·복쇠자매문기 사진 및 설명
전개	·조선 중후기 농업 생산력과 현재의 농업 생산력 그래프 비교 ·기근을 이겨내기 위한 계층별 노력 - 가난한 백성 : 쌀을 대신할 다양한 식재료 구함 - 부자 양반 : 곳간을 열어 백성을 도와주는 부자도 있었음 - 국가 : 구황서적 제작, 각종 대책	·농업생산력 비교 그래프 ·풀뿌리나 도토리, 송근 등을 먹는 백성들의 모습 삽화 ·경주 최부자, 김만덕 등의 사진 및 삽화 ·구황촬요 사진 및 설명
정리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구황작물을 들여옴	·조엄의 조선통신사 그림 및 설명 ·감자의 유입 삽화 및 설명

3) 3차시 : 조선 후기 변화된 삶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제시 자료
도입	·조선 후기 새로운 작물로 인한 농사의 다양화 ·모내기법으로 인한 수확량의 증가	·정약용의 글, 담배 농사 짓는 풍속화 ·모내기 풍속화
전개	·조선 후기 다양한 사회 변화로 인한 신분제의 변화 - 흥부전을 통해 본 환곡제 - 농가탄을 통해 본 가난 - 양반전을 통해 본 부농의 삶 - 자리짜기 그림을 통해 본 가난한 양반의 삶 - 공명첩을 통해 본 부농의 삶	 ·흥부전 삽화 및 내용 ·정내교의 농가탄 및 장길산 삽화 ·양반전 그림 ·자리짜기 풍속화 ·공명첩 사진
정리	·대단원 정리 : 옛날 농민들의 생활 모습을 현재와 비교하기 ·신분제의 변화 원인 및 결과 정리	·향약, 두레, 노동요 삽화 및 내용

Ⅴ. 결 론

학교 현장에서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할까. 연구자 개인의 경험으로는 역사를 좋아하는 소수와 역사를 암기과목으로 생각하는 다수가 있다. 역사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암기 과목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지 못하고 '역사'와 '나'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역사 내용 서술 방식이 정치사 위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사건, 왕조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역사 내용 구성 방식은 학생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흥미 있는 역사 수업을 할 수 있는 생활사 중심의 내용 구성 방식이 필요하다.

생활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야사로 보는 생활사, 역사 내용 전체의 틀로 보는 생활사가 있다. 한국사학계의 연구나 2000년대 초반까지의 연구가 전자에 치우쳤다면, 역사교육계의 연구나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연구는 후자에 가깝다. 그 이유는 생활사교육은 생활사를 통해 지식의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생활을 주제로 과거인의 생활을 이해하고, 현재와 연결 짓고, 미래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 역사교육에서는 분야사에 가까운 생활사 교육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생활사의 도입 과정에서 독일의 일상사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 없이 우리나라 역사에 반영한 것이나, 생활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점, 학자들 간에 생활사에 대한 개념에 대해 이견이 분분한 점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사는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소외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역사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해주고, 역사행위자로서 인간의 주체성을 부각시키며, 역사교육의 목표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현장의 역사교육에 생활사는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떠한 관점의 생활사를 반영시켜야 할까? 연구자는 역사 내용 전체의 틀로써 생활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분야사로서의 생활사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정치사, 인물사의 역사교육과 다를 바가 없다. 단지 그냥 그 시대의 생활을 배우는 것이다. 하지만, 생활을 주제로 역사 내용 전체의 틀을 구성하면 학생들은 보다 친근한 내용으로 역사를 대할 것이고,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것이며,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활사 중심의 역사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사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를 위해 생활사 아카이브[24]를 구축해야 한다(김주관, 2005). 둘째, 역사교육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역사영역 전체의 구성 방식을 생활사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미시적인 측면에서 생활사 관련 내용 선정, 내러티브 서술 방식, 확대된 학습 자료의 활용, 재현 활동을 통한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생활사의 다양한 자료의 축적과 축적된 자료의 공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교육적 활용도가 높은 내용을 역사교육 전체의 틀로 반영하여 생활사 중심 내용 구성을 한다면 학생들에게 훨씬 재미있고 쉽게 다가가는 역사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24) 아카이브란 소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한데 모아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 둔 파일을 말한다.

< 참고 문헌 >

강선주(2005), 생활사 교육의 내역과 방향,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 제95집 pp.143-176.

강선주 외(2009), 초등학교 사회과 역사 영역에서 생활사 내용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 **교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pp.759-876.

곽차섭(2002), '새로운 역사학'의 입장에서 본 생활사의 개념과 방향, 한국사학회, 부산 경남사학회 공동 학술발표회 자료집, **지역사와 생활사 연구**.

김주관(2005),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와 방법,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8(1), pp.217-249.

김지영(2012), 한국사학계에서 생활사의 가능성과 한계, 역사학회, **역사학보** 213 pp.391-407.

김희선(2007), 초등학교 생활사 교재의 서술내용 분석과 개선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재경(2007), 초등 사회과에서 아동생활사 교재의 개발과 적용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윤(2005), 생활사 학습의 과정에 나타난 추체험의 양상,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사회과교육연구** 12권 1호 pp.83-104.

방지원(2006), 국사 교육과정에서 '생활사-정치사-문화사-계열화 기준의 형성과 적용,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사회과교육연구** 13권 3호 pp.99-122.

방지원(2011), 초등 역사교육에서 생활사 내용구성,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 pp.1-27.

송호정(2005), 재미있는 역사 공부와 생활사,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신교장학1** pp.141-152.

우인수(1999), 조선시대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교육논집**, 23.24합집 p.826.

이수건(2000), **조선시대 생활사2**, 역사비평사, p.5.

임하영(2002), 생활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교재 재구성,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연식(2001),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 청년사.

조한욱(2000),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책세상.

최용규(2004), 사회과에서의 생활사 학습 지도 및 교재 구성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교육연구소, **사회과학교육연구** vol.7 pp.1-22.